

한미정상회담 주요 내용과 시사점

오수현 세계지역연구1센터 북미유럽팀 연구위원 (shoh@kiep.go.kr, 044-414-1186)

강구상 세계지역연구1센터 북미유럽팀장 (gskang@kiep.go.kr, 044-414-1099)

김혁중 세계지역연구1센터 북미유럽팀 부연구위원 (hjkim@kiep.go.kr, 044-414-1166)

김종혁 세계지역연구1센터 북미유럽팀 선임연구원 (jhkim@kiep.go.kr, 044-414-1193)

박은빈 세계지역연구1센터 북미유럽팀 전문연구원 (ebpark@kiep.go.kr, 044-414-1046)

윤아경 세계지역연구1센터 일본동아시아팀 연구원 (akyoon@kiep.go.kr, 044-414-1287)

차 례

1. 한미정상회담 개요
2. 한미정상회담 주요 내용과 의의
3. 시사점

주요 내용

- ▶ 한미 양국은 2025년 8월 25일 한국 신정부 출범 후 첫 정상회담을 개최함.
 -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 경제·통상 안정화, △새로운 협력분야 개척, △한미동맹의 현대화를 논의하고, 지난 7월 말 이루어진 무역·투자 합의 내용을 구체화함.
- ▶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대미 투자 방식이 더 구체화되었으며, 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산업 협력을 고도화하기 위한 한국과 미국 기업 간 각종 계약 및 MOU가 이루어짐.
 - 한미 양국은 조선 분야 1,500억 달러를 포함해 에너지, 핵심광물, 배터리, 반도체, 의약품, AI, 양자 컴퓨팅 등 전략 산업 강화를 지원하는 데 금융 패키지를 활용하고, MOU를 통해 동 패키지 구성과 운영을 규정하기로 합의함.
 -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조선, △원자력, △항공, △LNG, △핵심광물 분야의 양국 산업협력 증진을 위한 각종 계약과 MOU 체결이 이루어짐.
 - 조선산업의 경우 정상회담 이후 한화그룹은 추가 투자를 통한 필리조선소 건조 역량 확대를 발표했으며, 원자력 산업에서도 정상회담 과정 중 이루어진 각종 MOU를 통해 이미 진행 중인 한국과 미국 기업 간 파트너십이 더욱 고도화될 것으로 기대됨.
- ▶ 양국은 첨단기술과 핵심광물 분야 협력, 한미동맹 현대화에 대한 논의를 통해 투자 협력 외적인 부분에서도 동맹관계의 진전을 이루어 냄.
- ▶ 향후 한미 양국은 △상존하는 대미 사업 불안정성 제거, △MOU 및 산업협력이 집중된 조선산업 및 원자력 발전에 대한 협력 의제 구체화 및 이행, △AI를 비롯한 핵심신기술 분야 글로벌 경쟁 심화 대응,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협력 강화를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음.
- ▶ 또한 한국은 대미 투자 확대 이후 나타날 수 있는 △미국 경상수지 관리 강화, △대미 수출 구조 전환 등을 주시하고,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 한미정상회담 개요

■ 한미 양국은 2025년 8월 25일 한국 신정부 출범 후 첫 정상회담을 개최함.

- 한미 간 주요 경제·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025년 8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정상회담을 개최
- 이번 정상회담은 소인수 회담·약식 언론 질의응답(공개, 약 50분)에 이어 오찬 회담(비공개, 약 80분) 형식으로 진행

■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방미를 통해 한미동맹을 안보, 경제 및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기반으로 발전시키며, 조선 분야를 비롯해 제조업 부흥을 위한 양국간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강조

- 금번 회담에서는 한미동맹 발전 방향과 통상 합의에 대한 논의,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양국 정상의 의지 및 트럼프 대통령의 APEC 정상회의 참석 의사 표명이 있었음.
- 회담 이후 진행된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는 이 대통령, 산업부 김정관 장관, 미 상무부 하워드 러트닉 장관, 한국 및 미국 기업인들이 참석하여 양국간 산업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한미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 강화 목적의 MOU를 다수 체결
 - 조선, 원자력, 항공, LNG, 핵심광물 분야에서 총 11건의 MOU와 계약 체결
- 같은 날 개최된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정책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강조하는 한편, 한미동맹의 국익중심 실용동맹으로의 현대화, 국방비 증액, 북한 비핵화 협력, 첨단기술 동맹, 한미일 협력 추진 등을 언급
- 또한 회담 다음 날인 26일에는 한미간 조선 분야 협력을 상징하는 한화 필리조선소에서 열린 명명식에 참석함.

■ 한편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 일정을 통해 한일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을 순차적으로 기졌으며, 특히 한일정상회담에서는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함.

- 이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전에 일본을 방문한 것은 한국 정부가 한일 관계 및 역내 한미일 협력을 중시한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됨.¹⁾

■ 7월 말 타결된 관세 협상 직후 이번 정상회담 일정이 정해짐에 따라 관세 협상 후속 조치와 한미동맹 현대화 등이 회담의 주요 논의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음.

- 한국은 7월 30일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조건으로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미국과 합의한 바 있음.
- 한국은 △한미 경제·통상 분야 안정화,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 △한국 국익에 맞는 한미동맹 현대화를 한미정상회담의 목표로 설정²⁾

1) 한일 정상은 서둘러교류를 재개하고 한일 협력 및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회담 후 공개된 공동언론발표문에는 한일·한미일 협력 강화, 미래 산업 및 공동 사회과제 협력 심화, 한반도 비핵화 등 북한 문제 협력, 청년·문화 교류 확대 등이 담김(부록 표 참고).

2) 대통령실(2025. 8. 26.), 「한미 정상회담 관련 3실장(안보실장, 정책실장, 비서실장) 브리핑」, <https://www.president.go.kr/newsroom/briefing/bQUkg2PC>(검색일: 2025. 8. 26.).

- 관세협상 합의사항을 공고히 하고, 투자와 관세협상의 구체적인 사안들을 논의
- 국방뿐만 아니라 첨단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³⁾

표 1. 2025 한미정상회담 주요 의제

의제	주요 내용
한미 경제·통상 안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 협상 이후 투자, 구매, 제조업 협력 후속협의 • 3,500억 달러 대미투자 방식 구체화
새로운 협력분야 개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 협력 확대 • 원자력 협력 • 에너지, 핵심광물,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AI, 양자 컴퓨팅 등 전략산업 협력
한미동맹 현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맹 발전 방향 및 국방 역량 강화 방안 • 국방비 증액 • 방산협력 심화 •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화 재개

자료: 대통령실 브리핑(검색일: 2025. 8. 26.), 언론 및 보도자료를 토대로 저자 정리.

■ 지난 7월 통상 합의 시점에는 협상의 전반적인 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그간 한국을 비롯해 EU, 일본 등 주요국은 미국과 실무 차원의 협의를 지속해 음.

- 미국과 주요국 간 상호관세 협상 내용에 불분명한 요소가 일부 포함되어 관세율 적용 방식, 구체적인 대미 투자 이행 방안, 미국에 대한 시장 개방 수준 등을 둘러싸고 국가별 해석상의 차이 발생⁴⁾
 - 상호관세율 수정 행정명령(7. 31.)에서 15% 관세 상한을 설정한 EU 방식과 달리 일본은 기존 MFN 관세율에 15% 관세가 추가되는 방식이 발표됨에 따라 미국과 이를 수정하기로 협의(8. 7.)하였음.
-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말에 타결된 무역·투자 합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무 협상을 병행하고 있음.
 - EU의 경우 7월 무역합의 기본 협정(프레임워크)에 대해 공동성명을 발표(8.22)하였으며, 이는 협의를 위한 문서로 상세하게 작성되어 있음.

2. 한미정상회담 주요 내용과 의의

가. 통상 이슈

1) 관세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관세협상을 통해 한국에 부과기로 한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고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품목관세는 15%, 반도체·의약품 관세에는 최혜국대우(MFN) 원칙을 적용하기로 한 바 있음.

-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15%로 합의했으나, 아직 이를 적용하기 위한 포고령(Proclamation) 선포는 이루어지지 않아 부과 시점은 미정인 상황

3)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중 110번 과제 주요 내용.

4) 최용호(2025), 「주요국의 대미 관세협상 결과 분석: 경제안보 관점」, p. 16, 외교부 경제안보 Review, 25-15호.

- 자동차의 경우 한국은 그동안 한미 FTA를 통해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하였으나, EU와 일본도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받게 됨에 따라 기존 MFN 관세율과의 차이로 인한 이점이 사라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관세율 기준 경쟁국인 EU와 일본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협상 결과 도출
- 또한 한국의 반도체와 의약품 대미 수출에 대해서는 MFN 원칙을 적용하기로 함.
 - 트럼프 대통령은 애플의 대미 투자 계획 발표 행사에서 수입 반도체에 100%의 제232조 관세 부과발언(8. 6.)을 하였고, 의약품에 대해서도 최대 250%의 제232조 관세 적용을 언급한 바 있음.
- 다만 미국과 EU 간 공동성명에서 반도체, 의약품, 목재에 대한 15% 관세 적용이 명시된 바 있어 MFN 원칙이 한국에 적용된다면 우리 동 품목 대미 수출에도 15% 관세 적용을 예상할 수 있음.
 - 또한 미국과 EU의 공동성명에 따르면 항공기 및 부품, 제네릭 의약품 및 원료, 화학 전구체에는 MFN 관세만 적용됨에 따라 기존보다 관세 적용 범위가 다소 줄어들었음.
- 철강, 알루미늄의 경우 파생상품까지 50%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협상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미-EU 공동성명에서 TRQ 등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

표 2. 트럼프 2기 행정부의 對한국 관세정책 추진 경과

관세	주요 조치	
상호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에 대해 25% 차등관세 부과 예고 후 시행 시점 연기(4. 9.→7. 9.→8. 1.) · 협상 결과를 반영하여 관세 수정 행정명령(7. 31.)을 통해 관세율을 15%로 조정함. 	
제232조 품목별 관세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전방위적 25% 관세를 부과(2. 10.) 이후 50%로 관세 인상(6. 4.) ·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 발표(3. 26.) 후 관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함. · 구리에 대해 50% 관세 부과(7. 9.)
	미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재(3. 10.), 반도체 및 제조장비(4. 1.), 제약 및 원료(4. 1.), 트럭(4. 22.), 정제된 핵심광물 및 파생품(4. 22.), 상용 항공기 및 제트 엔진(5. 1.)에 대한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사를 개시 · 다만 반도체 및 제약제품에 대한 관세는 최혜국대우(MFN) 원칙을 적용하기로 함.

주: 관세 조치 발표일자 기준.

2) 비관세장벽

■ 한국과 미국은 관세 협상을 통해 자동차 안전 규제 완화, 농산물 검역 절차 개선 등을 통해 비관세장벽을 낮추기로 합의한 바 있음.

- [자동차 안전 규제 완화] 미국산 자동차 안전 규정 동등성 인증 상한을 폐지하기로 함.
 - 자동차 안전 규정 동등성 인증 제도는 미국산 차량에 대해 미국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우리나라 안전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임.
 - 2018년 한미 FTA 개정시 제조사별 동등성 인증 상한을 연간 2만 5,000대에서 5만 대까지 확대한 바 있으나, 이번 양국간 협상에서 해당 기준이 폐지됨.
 - 현재 한국에 5만 대를 넘게 수출하는 미국 차량 제조사가 없다는 점에서 우리 자동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⁵⁾

5)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 브리핑(7. 31.).

- [농산물 검역 절차 개선] 전면적인 쌀, 소고기 시장 개방 대신 양국은 농산물 검역 절차 개선에 합의함.
 - 7월 한미 통상협약에서 농산물 검역 절차에 대한 개선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짐.
 - USTR은 한국이 사과를 비롯한 특정 과일 품목(배, 자두, 천도복숭아, 블루베리, 감자 등)에 대해 엄격한 검역과 위생기준을 적용하여 수입 검역 절차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시장접근 확대 및 검역 완화를 요구⁶⁾
 - 참고로 사과의 경우 미국이 1993년 우리나라에 사과 수입위험분석(IRA)을 신청한 이후, 8단계 수입위험분석 절차 중 현재 2단계(분석 절차 착수) 진행 중임.⁷⁾
 - * 사과의 경우, '후지'를 제외한 품종에 대한 관세(45%)는 2021년에 철폐되었으며, 현재 후지 품종에는 15.7%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음.
 - * 또한 후지 품종에 대한 관세는 2026년 11.2%, 2027년 9%, 2028년 6.7% 등으로 매년 인하되어 2031년에는 완전히 철폐될 예정임.
- [디지털 무역] 미 행정부는 자국 디지털 기업의 사업 기회를 확대하고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의 디지털 정책에 개선 요구를 강화하고 있어, 디지털 통상장벽에 관한 철폐 협의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이번 정상회담시 네이버 등 한국 IT 기업은 경제사절단에 참여하여 양국 간 디지털·AI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
 - 7월 한미 간 통상협약에는 디지털 비관세 장벽에 대한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최근 공개된 유럽과의 공동성명에는 망사용료를 도입하거나 유지하지 않는 등 디지털 무역장벽 관련 내용이 포함됨.
 - 한국 온라인 플랫폼법, 구글지도 반출 등 디지털 비관세 장벽에 대한 압력은 지속 확대될 전망⁸⁾

3) 미국산 제품 구매

■ [에너지 수입 합의] 한국은 4년간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기로 합의했으며, 기존 수입 추이가 이어진다면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는 아닐 수 있음.

- 미국 순방 계기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전체 LNG 수입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한국가스공사는 트라피구라, 토탈에너지스와 2028년부터 약 10년간 미국산 LNG 연 330만 톤 신규 도입 계약을 체결함.
- '에너지' 품목의 정의가 내려지지는 않았으나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의 신성질분류에 따른 에너지 품목을 기준으로 하면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2024년 224억 달러가량의 에너지를 수입했으며, 이러한 수입액이 4년간 지속되면 896억 달러에 달함.
 - 2024년 기준 한국의 대미 에너지 수입은 2011년에 비해 10배 이상 급증해 224억 달러에 달함.
 - 2024년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142억 달러어치 원유를 들여오면서 전체 원유 수입의 17%를 미국으로부터 조달했으며, 이는 한국의 최대 원유 수입 대상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절반 수준임.
 - 2024년 기준 미국은 한국의 최대 가스 수입 대상국으로 76억 달러를 수입했으며, 전체 가스 수입의 22%를 미국으로부터 들여옴.

6) 박지현(2025), 「농축산물 검역절차 개선」, 오수현 외(역음), KIEP 내부자료.

7) 위의 자료.

8) 삼정 KPMG(2025), 「한미정상회담에 따른 국내 산업별 영향: 대미 투자를 중심으로」.

-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 LNG 총수입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가스공사는 미국산 LNG 장기 구매 계약(10년간 연 330만 톤)을 체결함.
- 이와 별개로, 사우디로부터 수입하는 원유의 10%(30억 달러가량) 정도를 미국산으로 전환할 경우 전체 미국산 에너지 수입액이 연간 250억 달러를 초과하게 되어 4년간 1,000억 달러 구매 합의를 이행할 수 있음.
 - o 한국은 기존 중동국으로부터의 LNG 계약 만료 시점에 맞춰 미국산 LNG로 점진적 전환 중⁹⁾
- 다만 한국은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LNG에 대한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고 있으며,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믹스를 재편하고 있음.

표 3. 한국의 에너지 수입 현황

에너지 수입(2011년)				에너지 수입(2024년)			
순위	국가	수입액	비중	순위	국가	수입액	비중
1	사우디	336	23%	1	사우디	297	22%
2	카타르	183	12%	2	미국	224	16%
3	쿠웨이트	146	10%	3	호주	155	11%
4	인도네시아	113	8%	4	UAE	122	9%
5	UAE	110	7%	5	카타르	113	8%
6	호주	103	7%	6	이라크	77	6%
7	이란	100	7%	7	쿠웨이트	67	5%
8	이라크	91	6%	8	인도네시아	43	3%
9	러시아	65	4%	9	오만	40	3%
10	오만	50	3%	10	러시아	35	3%
11	말레이시아	37	2%	11	말레이시아	35	3%
12	캐나다	25	2%	12	캐나다	25	2%
13	브루나이	20	1%	13	멕시코	20	1%
14	중국	14	1%	14	브라질	20	1%
15	미국	14	1%	15	알제리	12	1%

원유 수입(24년)		
국가	수입액	비중
사우디	295	35%
미국	142	17%
UAE	119	14%

가스 수입(24년)		
국가	수입액	비중
미국	76	22%
호주	72	21%
카타르	66	19%

기타(석탄 등) 수입(24년)		
국가	수입액	비중
호주	61	37%
인도네시아	26	16%
미국	6.2	4%

주: "에너지" 품목은 신성질분류의 에너지 품목을 의미함. 기타는 석탄, 갈탄과 토탄, 코크스와 레토르트카본을 모두 합산함.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나. 한미 산업 협력

■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과 정상회담을 통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협력펀드를 조성하여 조선업에 최대 1,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에너지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함.

- 한미 양국은 조선 분야 최대 1,500억 달러를 포함, 에너지, 핵심광물, 배터리, 반도체, 의약품, AI, 양자 컴퓨팅 등 전략 산업 강화를 지원하는 데 금융 패키지를 활용하기로 하였고, MOU를 통해 동 패키지 조성과 운영을 규정하기로 합의함.¹⁰⁾

9) 카타르 등 중동국가로부터의 LNG 수입은 20년 이상 장기계약의 비중이 높고 도착지 제한 조항이 있는 반면, 미국산 LNG는 단기·중기 계약 위주로 계약 조건이 유연하며 도착지 제한 조항이 없음 (제3국 재판매 가능). Park, June, "Gulf LNG in the Time of U.S. Tariffs : Navigating Geoeconomic Turbulence amid Trump's Trade War," Issue Brief, Middle East Council on Global Affairs (forthcoming).

10) 대통령실(2025. 8. 26.), 「한미 정상회담 관련 3실장(안보실장, 정책실장, 비서실장) 브리핑」.

- 실무 TF를 구성하여 세부적인 실행 방안을 미국과 논의할 계획
- 펀드 운영에 따른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프로젝트에서 나온 산출물은 미국 정부가 인수를 책임지며, 합리적이고 상업적 타당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될 것임(7. 31.).¹¹⁾
- 미-일, 미-EU 무역협약에서도 각각 5,500억 달러와 6,000억 달러 대미 투자로 반도체, 의약품, 자동차, AI 등 미국의 핵심경제안보 분야의 공급망을 강화하기로 함.

1) 대미투자 현황

■ [한국의 대미투자 현황] 한국의 대미 투자 규모는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으나, 누적 기준으로 보면 주요국에 비해 두드러지게 크다고 보기 어려움.

- 2024년 기준 한국의 누적 투자 금액은 932억 달러로 전체의 1.6% 수준이며, 2020년 대비 2024년 한국의 대미 투자 금액 변화분은 336억 달러로 동 기간 전세계 대미 투자 금액 변화분(1.1조 달러)의 3%가량을 차지함.
- 제조업 분야의 경우 2024년 기준 한국의 누적 투자 금액 점유율이 0.6%에 불과하며 2020년 대비 2024년 한국의 대미 투자 금액 변화분은 69억 달러로 전세계 대미 투자액의 1.4%가량만을 차지함.
 - 전체 한국의 대미 해외투자 금액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11.4%에서 2024년 14.6%로 증가하고 있으나 대체로 제조업 외 부문에 투자가 집중되어 있음.
 - * 이는 우리의 대미 투자가 직접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유통 구조를 갖추기 위한 판매법인 설립에 집중된 데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음.

표 4. 한국의 누적 대미 투자금액과 포지션 변화

	전체 산업 누적 대미 투자금액(억 달러)			제조업 누적 대미 투자금액(억 달러)		
	2020년 (A)	2024년 (B)	포지션 변화 (B-A)	2020년 (C)	2024년 (D)	포지션 변화 (D-C)
전체	46,135	57,077	10,942	19,245	24,161	4,916
캐나다	5,697	8,117	2,420	635	674	39
유럽	24,812	31,927	7,115	11,923	17,033	5,110
아시아·태평양	10,046	12,021	1,975	4,271	4,850	579
일본	6,942	8,192	1,250	3,427	3,860	433
한국	596	932	336	68	136	69
대만	238	261	23	74	147	73

주: 누적 대미 투자 금액은 BEA에서 집계하는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Position"을 기준으로 함.
 자료: Bureau of Economic Analysis, "Balance of Payments and Direct Investment Position Data"(검색일: 2025. 8. 22.).

- 미국 내 신규 생산 여력 증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그린필드 투자¹²⁾의 경우 2022년과 2023년 한국이 미국 내에서 각각 38%와 24%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음.

11)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브리핑(7. 31.).
 12) 미국 상무부는 신규 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존 미국 내 법인의 확대를 위한 투자를 그린필드 투자로 정의해 각종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있으며, 본고도 해당 기준에 따라 상무부 자료를 사용하고 있음. Bureau of Economic Analysis(2025. 7. 11.), "New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https://www.bea.gov/news/2025/new-foreign-direct-investment-united-states-2024>.

- 미 상무부가 제공하는 2024년 통계 기준 한국의 대미 그린필드 투자액은 약 0.1억 달러로 급감
 - 다만 수출입은행 자료(2025. 8. 22. 기준)에 따르면 2021~24년 한국의 대미 해외직접투자 금액은 1,080억 달러, 동기간 그린필드 투자 금액은 720억 달러에 달하며, 2023년(189억 달러)과 2024년(148억 달러) 간에도 큰 차이가 없음.

표 5. 미국 내 그린필드 투자 추이

(단위: 억 달러, %)

국가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체	54.5	77.4	131.2	173.2	80.7
캐나다	2.0 (4%)	8.7 (11%)		43.6 (25%)	6.8 (8%)
유럽(58개국)	26.6 (49%)	54.5 (70%)	37.3 (28%)	32.0 (18%)	38.5 (48%)
아시아·태평양	21.2 (39%)	11.1 (14%)	71.8 (55%)	85.0 (49%)	11.7 (15%)
한국			49.6 (38%)	40.9 (24%)	0.1 (0%)
일본	6.9 (13%)	4.3 (6%)	13.8 (11%)	17.1 (10%)	6.7 (8%)

주: 1) 괄호 안의 숫자는 전체 그린필드 투자액에서 각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임. 공란은 기업 기밀상의 이유 등으로 상무부에서 숫자를 공개하지 않은 상황을 의미함.

2) 그린필드 투자를 분석한 기존 자료(Bureau of Economic Analysis(2024. 7. 12.), "New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2023," <https://www.bea.gov/news/2024/new-foreign-direct-investment-united-states-2023>)는 2023년 그린필드 투자금액을 약 124억 달러로 제시했으나 이후 통계가 업데이트됨. 본고의 2024년 통계도 추후 변경될 수 있음.

자료: Bureau of Economic Analysis, "Data on new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검색일: 2025. 8. 22.).

- 전임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미국 내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에 대한 한국의 대규모 투자가 시작되었으며,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관세 협상과 정상회담을 계기로 기존 투자가 이어지는 동시에 조선, SMR, 원자력, 제약바이오 등의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표 6.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 동향

국가	바이든 행정부	트럼프 2기 행정부
반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 삼성전자(370억 달러), SK하이닉스(38.7억 달러) · [소재] 애플리케이션(6억 달러), 솔브레인(5.75억 달러), SK실트론 CSS(3억 달러), 코미코(0.5억 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성전자 Taylor Fab1의 건설 공정률은 거의 100%에 달하며 2026년 가동, Taylor Fab2도 27년 가동 예정 · 이 외 솔브레인('29~'33년), SK하이닉스('28년), 애플리케이션('25년 초도 생산), SK실트론 CSS('27년)도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대체로 가동 및 양산 예정되어 있음.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 현대차(엘라베마; 3억 달러), 기아차(조지아; 2억 달러) 투자 후 가동 · [부품] 현대모비스, 세원정공, NVH코리아, 한온시스템 한국타이어 등도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차그룹 210억 달러 추가 투자 발표로 철강 연간 270만 톤 생산, 자동차 연간 120만 대 생산 등을 목표로 하고 있음.
배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 LG에너지솔루션(258억 달러), SK온(164억 달러), 삼성SDI(90억 달러) 투자 · [소재] LG화학, 롯데알루미늄, 한화첨단소재, 솔브레인, LNF 등이 투자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ltium Cells (LG에너지솔루션과 GM 합작기업)의 1, 2 공장은 가동했으며, 3, 4공장 투자 예정 · SK온, 삼성SDI 모두 대체로 2025년부터 생산 시작 예정 · 기타 소재기업들도 대체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생산 시작이 예정되어 있음.

국가	바이든 행정부	트럼프 2기 행정부
계약 바이오	· 지놈앤컴퍼니(1.25억 달러), 운트바이오(1억 달러), 롯데바이오로직스(0.7억 달러)	· 셀트리온 미국 내 원료의약품 공장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조선	· 한화오션: 필리 조선소 인수(1억 달러) 및 오스탈 지분 매입 · HD현대: 헌팅턴인겔스, 페어뱅크스모스디펜스, 에디슨 슈에스트 오프쇼어 파트너십 체결	· 한화그룹 한화필리조선소 50억 달러 투자 · HD현대, 삼성중공업 미국 내 유관기업과 조선 분야 협력을 위한 MOU 체결
SMR	· 뉴스케일: 삼성물산, 두산에너지빌리티, GS에너지 등 투자 · 테라파워: SK, SK이노베이션, 한수원 등 투자 · X-Energy: 두산에너지빌리티, DL이엔씨 등 투자 · 홀텍: 3MR-300 프로젝트에 현대건설 참여	· 정상회담 계기로,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에너지빌리티 등이 미국 내 유관기업과 SMR 협력을 위한 MOU 체결
재생에너지	· [풍력] CS윈드(Vestas 풍력타워 공장 인수) · [태양광] 한화큐셀(25억 달러) · [소재] 한화첨단소재(1.47억 달러) · [인프라] LS전선(5.86억 달러)	· 정책 환경 측면에서 다소 침체

자료: 각종 언론 및 기업 보도자료 참고해 작성함.

■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주목하는 조선, SMR, 핵심광물 분야에 대한 각종 MOU 및 계약 체결이 진행되어 양국 간 산업 협력 고도화를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음.

표 7.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2025. 8. 26.)'에서 이루어진 MOU 및 계약 체결 내용

분야	한국 기업	미국 기업	체결 내용
조선	HD현대, 한국산업은행	서버리스 캐피탈	· 수십억 달러 규모 공동 투자 펀드 조성(MOU)
	삼성중공업	비저 마린 그룹	· 미국 해군의 지원함 MRO 역량 강화, 조선소 현대화 및 선박 공동 건조 등 협력(MOU)
원자력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에너지빌리티	엑스에너지, 아마존웹서비스	· SMR 설계, 건설, 운영, 공급망 구축, 투자 및 시장 확대 협력(MOU)
	두산에너지빌리티	페르미 아메리카	· 텍사스 AI 캠퍼스 대형원전 및 SMR 기자재 제작 협력(MOU)
	한국수력원자력, 삼성물산	페르미 아메리카	· 텍사스 AI 캠퍼스 원전·화력·태양광 통합 운영 협력(MOU)
	한국수력원자력	센트러스	· 우라늄 농축 공장 설비 구축지분 투자(MOU)
항공	대한항공	보잉	· 보잉 항공기 103개 신규 도입(362억 달러 규모) 계약을 위한 MOU 체결
		GE에어로스페이스	· 엔진 구매 및 엔진 정비 서비스 계약(137억 달러 규모) 계약을 위한 MOU 체결
LNG	한국가스공사	트라피구라	· 2028년부터 약 10년간 미국산 LNG 연 330만 톤 신규 도입 계약 체결
		토탈에너지스	
핵심 광물	고려아연	록히드마틴	· 2028년부터 게르마늄 장기 공급 등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MOU)

자료: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2025. 8. 26.), 「한-미 '제조업 르네상스' 연다...조선·원자력 등 11개 계약·MOU 체결」,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8174>(검색일: 2025. 8. 27.).

2) 조선업

- 한국 조선사의 대규모 미국 현지 투자 및 금융지원을 포괄하는 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를 제안함.
 - 최대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협력 펀드를 조성해 미국 조선소 인수·확장, 선박 건조, 유지보수(MRO), 조선 기자재 등 우리 기업 수요에 기반한 프로젝트에 투자함으로써 미국 내 조선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조선산업 부흥을 위한 당근과 채찍을 모두 활용하고 있으며, 해외 우수 조선기업들의 투자를 미국으로 유치하고자 노력함에 따라 동 분야에서 한미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해양 지배력 복구(EO 14269)」를 통해 국방부의 전략자본대출 프로그램을 비롯한 조선산업에 대한 가용한 지원 도구를 점검하고, 민간 투자를 위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대한 입법안 제시를 지시한 바 있음.
 - 또한 동 행정명령은 동맹 및 파트너국과의 협력으로 적국에 대한 의존도를 감축하기 위해 미국 내 투자를 추진하는 우방국 소재 조선업체들에 지원할 수 있는 모든 가용한 인센티브를 해양행동계획에 포함하도록 권고함.
 - 한국의 한화그룹, HD현대, 삼성중공업은 모두 적극적인 미국 투자를 추진하고 있으며, 정상회담 이후 한화 그룹은 필리조선소에 대한 추가 투자, HD현대는 투자 기금 조성을 위한 MOU 체결, 삼성중공업은 미국 내 공급망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음.

표 8. 한국 조선기업들의 미국 진출 현황

기업	대미 투자 내용
한화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필라델피아 필리 조선소 인수(\$1억) 및 추가 설비투자 · 정상회담 이후 한화필리조선소에 50억 달러 투자를 통해 연간 1~1.5척 수준인 선박 건조 능력을 20척까지 확대 추진 발표 · 호주 오스탈 지분 9.9%를 매입 통해 앨라배마와 캘리포니아의 오스탈 조선소를 군함 건조 및 수리 거점으로 활용 추진
HD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위산업 조선사 현팅턴 잉겔스와 생산 인력 파견 및 미국 내 하청 공급망 재건, 공동 수주 방안 등을 논의하고 기술양해각서(MOU) 체결 · 페어뱅크스모스디펜스와 공급망 및 수출 협력을 위한 MOU 체결 · 정상회담 계기로 산업은행, 서버리스캐피탈과 수십억 달러 규모 공동 투자 펀드 조성 MOU 체결
삼성중공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상회담 계기로 비저 마린 그룹과 미국 해군 MRO 역량 강화, 조선소 현대화, 선박 공동 건조 등 협력을 위한 MOU 체결

자료: 중앙일보 (2025. 4. 12.), 「트럼프 “외국에 최첨단 선박 주문할 수도”…K조선, 미국 진출 속도낸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8035>(검색일: 2025. 6. 5.); 한화그룹 보도자료(2024. 6. 21.), 「한화그룹, 美 필리 조선소 인수… 국내 기업 최초 美 조선업 진출」, https://www.hanwha.co.kr/newsroom/media_center/news/news_view.do?seq=13545(검색일: 2025. 6. 5.); 한화그룹 보도자료(2025. 8. 27.), 한화그룹 보도자료(2025. 8. 27.), 「한화, 한미 조선협력의 상징 한화필리조선소에 50억달러 투자 한화해운, 필리조선소에 중형 유조선 10척-LNG 운반선 1척 발주」.

- 동시에 USTR은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조치로 △중국산 선박, △중국인이 소유하는 선박, △외국산 자동차 운반선, △외국산 LNG 운반선에 대한 입항 수수료 부과 조치를 공표해 미국 내에서 선박을 건조하도록 유도함.

3) 원자력(SMR)

■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SMR을 비롯한 원자력 발전 도입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트럼프 2기 행정부도 정책적으로 이를 뒷받침하고 있어 한미 원자력 협력에 대한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음.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국가안보를 위한 첨단 원자로 기술 도입(EO 14299)」, 「핵규제위원회 개혁(EO 14300)」, 「에너지부 원자로 시험 체계 개혁(EO 14301)」, 「원자력 산업 기반 재건(EO 14302)」를 연달아 발표하며 △국가 주도 원자로 증설, △산업 지원, △핵 연료 주기 강화, △규제 개혁을 추진 중이며,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100GW(2024년)에서 400GW 수준으로 향상하고자 함.
- 세계 3대 데이터센터사업자인 아마존은 대략 620MW 이상, 구글은 500MW, 마이크로소프트는 835MW 가량의 SMR 또는 대형 원전 도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외 주요 AI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메타, 오라클, OpenAI도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 계획을 검토하고 있음.

표 9. 미국 빅테크 기업의 원자력발전에 대한 수요

수요 기업	종류	도입연도	규모	비고
아마존	SMR	2030년대 초	320MW (960MW로 확대 가능)	· Energy Northwest와 워싱턴 주에서 SMR 도입 · X-energy의 Xe-100 (80MW) 설계 도입
	SMR	2040년까지	300MW 이상	· Dominion Energy와 버지니아주에서 SMR 도입 · SMR 기업으로부터 RFP 접수 단계
	SMR	· X-Energy에 지분투자 (5GW 핵에너지 프로젝트 위한 장비 지원)		
구글	SMR	2030~35년	500MW	· Kairos Power의 SMR 원자력 에너지 구매 협약
마이크로소프트	원자력	2028년	835MW	· Constellation과 함께 Three Mile Island Unit 1 재가동 추진
메타	원자력 /SMR		1~4GW 예상	· 원전 개발을 위한 RFP 접수 신청 받았음.
오라클	SMR	· CTO 래리 앨리슨이 투자자 간담회에서 오라클이 SMR 3개 원자로를 통해 전력을 공급받는 기가급(1GW 이상) 데이터센터 설계 중이라고 언급함.		
OpenAI	· 샘 올트먼 의장이 오클로(원자력 스타트업) 의장을 겸직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이해충돌 우려로 오클로 의장직 사임함. · 미국 에너지부에 보낸 공개서한에서 SMR에 대한 투자 확대, 원자력 기반의 전력망 현대화를 연방정부에 요청했으며 OpenAI도 첨단 원자력 기술 도입에 집중하고 있음을 밝힘.			

자료: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는 기업 공식 보도자료나 對정부 서한 등을 통해, 메타와 오라클은 언론 보도자료를 종합해 정리함.

- 기존 원자로 설계사와 한국 기업들이 지분투자나 협력사 관계를 맺었던 것을 넘어 이번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에너지, 엑스에너지, 아마존웹서비스와 같은 시공사, 설계사, 수요 고객이 공급망 전반에서 협력을 추진하고, 두산에너지와 페르미아메리카(에너지 개발 사업자)가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등 한미 간 SMR 협력이 복합적인 차원으로 발전되었음.

표 10. 한미 간 SMR 협력 현황

미국 측 원자로 설계사		협력 현황
기업명	목표	
뉴스케일	· 2029년까지 2GW 도입 목표	· 삼성물산, 두산에너지, GS에너지 등 투자 · 두산에너지빌리티가 주요 기자재 공급 · 한국에 SMR 건설 추진
테라파워	· 와이오밍에 실증 사업 진행 중(2030년 가동 목표)	· SK, SK이노베이션, 한수원 등 투자
엑스에너지	· 2039년까지 미국에 5GW 이상 도입 목표	· 두산에너지빌리티, DL이앤씨 등 투자 · 정상회담 계기로 두산에너지빌리티, 아마존웹서비스, 한국수력원자력과 MOU 통해 SMR 공급망 전반에 대한 투자 및 시장 확대 협력
홀텍	· 2030년 상업 운전 돌입하며 북미에 10GW 공급 목표	· 3MR-300 건설 프로젝트에 현대건설이 사업 참여 중

자료: 각 기업 보도자료 및 언론보도 참고함.

4) AI 및 핵심광물

■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AI 및 핵심광물 분야에서 공급망 및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 금번 이 대통령 방미에 동행한 경제사절단에 포함된 네이버 최수연 대표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를 만나 한미 간 디지털 및 AI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함.
 - 지난해 6월 말에도 최 대표는 황 CEO와 회동을 통해 '소버린(Sovereign) AI*' 모델 구축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바 있는데, 양측 회동은 엔비디아가 제안하여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¹³⁾
 - * 소버린 시란 국가나 기업이 자체 인프라와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자국의 사회·문화적 요소에 특화된 시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역량을 의미¹⁴⁾
 - 이번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이뤄진 양측간 대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시장 동향과 향후 양사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됨.¹⁵⁾
-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1기 행정부 시기부터 대표적 핵심신흥기술(Critical Emerging Technologies, 이하 CET)인 AI 분야에서 미국의 글로벌 기술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펼친 바 있음.

13) ZDNET Korea(2025. 8. 26.), 「유미's 픽 젠슨 황 만난 최수연, 엔비디아 최신 GPU 확보 속도낼까」, <https://zdnet.co.kr/view/?no=20250826174307>(검색일: 2025. 8. 27.).

14) 국립국어원, 「다듬은 말」, https://www.korean.go.kr/front/imprv/refineView.do?imprv_refine_seq=21187&mn_id=158&pageIndex=1&utm_source=chatgpt.com(검색일: 2025. 8. 27.).

15) ZDNET Korea(2025. 8. 26.), 「유미's 픽 젠슨 황 만난 최수연, 엔비디아 최신 GPU 확보 속도낼까」, <https://zdnet.co.kr/view/?no=20250826174307>(검색일: 2025. 8. 27.).

-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 미국의 AI 분야 글로벌 기술 리더십 유지를 위한 정책으로는 △“Maintaining American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EO 13859, 2019년 2월 11일),¹⁶⁾ △국가안보를 위한 인공지능위원회(National Security Commiss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NSCAI) 설립(2018년 8월) 등이 있음.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련 정책으로는 △“Removing Barriers to American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EO 14179, 2025년 1월 23일),¹⁷⁾ △OpenAI, 소프트뱅크, 오라클 등이 참여하는 Stargate 프로젝트 공식 출범(2025년 1월 21일) 등을 꼽을 수 있음.
- 경제사절단 참여 기업인 고려아연은 미국 록히드마틴(Lockheed Martin)사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함.
 - 이번 MOU를 통해 고려아연은 2028년부터 중국을 비롯한 우려국(러시아, 북한, 이란) 외에서 채련한 게르마늄을 록히드마틴에 공급하고, 록히드마틴이 이에 대한 우선 조달권을 갖는 off-take 계약 체결을 추진할 예정¹⁸⁾
 - * 이를 위해 고려아연은 울산 온산제련소에 1,400억 원가량을 투자해 2028년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게르마늄 공장 신설을 추진하고 있음.¹⁹⁾
 - * 2021년 기준으로 중국은 전 세계 게르마늄 생산의 68%를 차지할 만큼 세계 게르마늄 생산을 주도하고 있음.²⁰⁾
- 그간 미국은 과도한 대중국 희토류 의존도를 핵심 리스크로 지목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광물안보파트너십(Minerals Security Partnership, 이하 MSP)을 주도하면서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추진해 왔음.
 -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 사이 미국의 대중국 희토류 화합물(compounds) 및 금속 수입 비중은 70%(다음으로 말레이시아(13%), 일본(6%), 에스토니아(5%) 순입)에 육박할 만큼 중국 의존도가 높음.²¹⁾
 - 중국의 희토류 생산량 및 매장량은 2024년 기준으로 각각 27만 톤, 4,400만 톤을 기록하며 미국을 비롯한 여타 국가 수치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표 11 참고).
 -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전임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6월에 △공급망 정보 공유, △공급망 인프라 구축, △재사용 및 재활용 기술 개발 등을 목표로 한 MSP를 주도적으로 출범시켰으며, 한국은 2024년 7월부터 1년 동안 의장국을 수임함.
 - * MSP 회원국: 미국, 호주, 캐나다,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인도, 이탈리아, 일본, 노르웨이, 한국, 스웨덴, 영국, 유럽연합

16) Federal Register(2019. 2. 11.), “Maintaining American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19/02/14/2019-02544/maintaining-american-leadership-in-artificial-intelligence>(검색일: 2025. 8. 20.).

17) The White House(2025. 1. 23.), “REMOVING BARRIERS TO AMERICAN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1/removing-barriers-to-american-leadership-in-artificial-intelligence/>(검색일: 2025. 8. 20.).

18) Investing.com(2025. 8. 26.), “Korea Zinc signs germanium supply deal with Lockheed Martin,” <https://www.investing.com/news/assorted/korea-zinc-signs-germanium-supply-deal-with-lockheed-martin-432SI-4210341>(검색일: 2025. 8. 27.).

19) *Ibid.*

20) *Ibid.*

21) USGS, “Rare Earths Statistics and Information,” <https://pubs.usgs.gov/periodicals/mcs2025/mcs2025-rare-earths.pdf>(검색일: 2025. 8. 21.).

그림 1. 미국 희토류 생산량 및 수입량 추이



주: 희토류 산화물 환산(REO equivalent) 기준.
 자료: 미국 지질조사국(USGS), "Rare Earths Statistics and Information," <https://pubs.usgs.gov/periodicals/mcs2025/mcs2025-rare-earths.pdf>(검색일: 2025. 8. 21.).

표 11. 주요국 희토류 생산량 및 매장량 현황

국가	생산량		매장량
	2023년	2024년	
중국	255,000	270,000	44,000,000
미국	41,600	45,000	1,900,000
버마	43,000	31,000	NA
호주	16,000	13,000	5,700,000
나이지리아	7,200	13,000	NA

주: 1) 2024년 기준 생산량 순서로 나열.
 2) NA는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
 자료: 미국 지질조사국(USGS), "Rare Earths Statistics and Information," <https://pubs.usgs.gov/periodicals/mcs2025/mcs2025-rare-earths.pdf>(검색일: 2025. 8. 21.).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자국 내 핵심광물 생산 촉진은 물론 개별국과의 자원 외교를 통해 공급망 안정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는 여전히 리스크로 남아 있음.
 -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MSP 관련 특별한 변화 움직임은 없으며, 대신 미국 내 핵심광물 생산을 촉진 하는 조치와 함께 다자간 협력보다는 특정국가 개별적인 자원 외교를 통한 공급망 안정화 전략을 추진 중
 - *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현재까지 MSP에 관한 공식적인 발언이나 이를 변화시키는 내용이 포함된 이니셔티브는 공개 된 바 없음.
 - * 트럼프 대통령은 "Unleashing American Energy"(EO 14154, 2025년 1월 20일)²²⁾ 행정명령을 통해 희토류를 비롯한 비연료 광물의 선도적인 생산 및 가공 국가로 입지를 다짐으로써 국내 산업 번영을 이루는 한편, 동맹국과 공급 망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 * 또한 사우디, UAE 방문 계기에 미국 기업과 현지 기업간 핵심광물 공동 생산 MOU를 체결하였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를 조건으로 핵심광물 개발 및 수익권을 따냈으며, 콩고-르완다 분쟁 중재를 통해 DR콩고에 매장된 풍부한 핵심광물 접근권을 확보²³⁾
 - 한편 중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펜타닐 관세, 상호관세) 부과에 대한 대응으로 전략적 핵심광물 및 희토류에 대한 수출통제를 시행하였으며, 이는 미중 간 관세 협상의 핵심 이슈로 부각되었음.
 - * 중국에 대한 상호관세(125%)에 펜타닐 관세(20%)까지 더해 미국의 대중국 관세는 4월 한때 145%까지 부과되었고, 이에 대응해 중국은 두 차례에 걸쳐 핵심광물 수출통제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양국간 런던 합의(6. 10.)를 통해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가 완화되었음.

22) Federal Register(2025. 1. 20.), "Unleashing American Energy,"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5/01/29/2025-01956/unleashing-american-energy>(검색일: 2025. 8. 21.).
 23)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2025. 8. 14.), 「미국의 방산·핵심광물 연계 경제안보 모델 분석: UAE, 사우디, 우크라이나, DR콩고」, 『경제안보 Review』.

표 12. 중국의 핵심광물 수출통제 현황

구분	대상 핵심광물	미국 조치에 따른 중국 대응	주요 사용 산업 분야
1차 핵심광물 수출통제 (2025. 2. 4.)	텅스텐, 텔루륨, 비스무트, 폴리브덴, 인듐	- 5종 광물은 미국의 대중 추가 관세(10%) 부과 보복 조치 - 중국 정부가 즉각적으로 수출통제를 발표·시행 - 수출통제는 금속, 화합물, 합금 등 관련 품목 전반에 적용	- 텅스텐: 방위산업(포탄, 장갑판), 전투기 - 텔루륨 : 태양광 패널, 충전식 배터리 - 비스무트: 의료용 조영제 - 인듐: 반도체, 태양광 패널 - 폴리브덴: 미사일 부품, 원자로
2차 희토류 및 자석류 수출통제 (2025. 4. 4.)	디스프로슘, 이트륨, 사마륨, 가돌리늄, 테르븀, 루테튬, 스칸듐, 희토류 자석류(네오디뮴 등 포함)	-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 보복 - 중국에서 정제된 6~7종 희토류와 자석류에 대해 수출 허가제를 도입 - 사실상 수출을 중단하거나 엄격히 제한	- 사마륨: 코발트 자석 - 가돌리늄: 조영제 - 테르븀: 형광체 원료 - 디스프로슘: 모터나 전기차용 영구자석에 첨가제로 사용 - 루테튬: 방사선 치료 사용 - 스칸듐: 알루미늄 합금용으로 항공기 부품 등에 사용 - 이트륨: 형광체, 합금 첨가제에 사용

자료: 조일현 외(2025. 8. 18.), 「트럼프 2기 관세정책이 에너지부문에 미치는 영향」,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5-15호, p. 15 재인용.

다. 한미동맹 현대화

■ [한미동맹 현대화] 양국 정상은 동맹 현대화를 위해 △한국의 국방비 증액, △한반도 안보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 △한미일 3각 공조 강화 등을 논의

- 한국은 국방비를 증액하여 첨단 과학기술과 자산을 도입해 스마트 강군을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 확대에 관심을 나타냄.
- 한국이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는데 양국이 뜻을 같이함.
- 양국 정상은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한미일 협력 강화가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²⁴⁾
 -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한국 대통령이 다자 회의 참석을 제외한 단독 양자 외교 방문국으로 일본을 선택한 사례는 이번이 최초임.
-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기지 부지의 소유권 요구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으나, 당초 언급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
 -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기지 건설에 많은 돈을 썼고, 한국도 기여했다”면서도 “그러나 거대한 군사기지 부지의 임대차 계약을 없애고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밝힘.
 - 미국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의거해 한국 내 미군 기지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고 있음.
-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동맹 현대화와 관련된 질문에서 ‘비핵화’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였는데, 이는 러시아, 중국과의 핵군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북한의 비핵화로 해석될 여지도 있음.²⁵⁾

24) 뉴시스(2025. 8. 26.), 「트럼프, 주한미군기지 부지소유권 거론…“연내 김정은 만나고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15586064?rc=N&ntype=RANKING>(검색일: 2025. 8. 26.).

- 한미정상회담 개최 전 ‘동맹 현대화’ 관련 핵심 의제로 △국방비 증액, △방위비 분담금 인상,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이 거론되었음.
 - 미국은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8~5.0% 수준으로 늘리고, 방위비 분담금도 증액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짐.²⁵⁾
 -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의 역할과 활동 범위를 확대·조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주한미군의 재배치를 한국 정부가 지지해 줄 것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해 왔음.

3. 시사점

■ [미국 내 사업 불안정성 제거]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사전 관세 협의 내용이 구체화되는 성과가 있었으나, 향후 미국 정책 방향 변화에 따라 한국 기업들의 대미 사업이 영향받을 수 있는 만큼, 미국 내 사업 불안정성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

- 한미정상회담 과정에서 관세 협상 결과가 변경되거나 미국 측의 새로운 요구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했으나, 정상회담이 우호적으로 진행되면서 이러한 우려는 불식됨.
- 다만 관세 협상과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이 모두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추후 농산물 시장 개방, 경제안보, 디지털 무역 등을 둘러싼 부분에서 지속적인 논의가 이어질 수 있으며, 이행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협의하는 채널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은 최근 인텔이나 록히드마틴과 같은 기업의 지배구조에 개입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은 향후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기업들의 소유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함.

■ [수출 구조 전환] 한미정상회담으로 공고해질 한국의 대미 투자 확대는 향후 우리 수출 구조의 전환을 불러올 수 있는바, 이에 맞춘 공급망 상류 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함.

- 반도체, 자동차, 제약바이오 등의 산업에서 펼쳐지는 해외투자 확대는 이를 지탱하기 위한 소재, 부품, 장비 등 공급망 상류 산업의 대미 수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음.
- 따라서 완제품 위주의 대미 수출 구조가 상대적으로 공급망 상류 제품을 수출하는 방향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음.
 - 현재 한국 반도체의 경우 웨이퍼나 칩 형태의 완제품보다는 디램 모듈, SSD 완제품 등을 주로 미국에 수출하며, 자동차도 부품보다는 대미 완성차 수출 비중이 높음.
- 이러한 변화를 통해 대미 수출 시장 내 주요 경쟁 상대가 완제품 생산자에서 공급망 상류 기업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맞춘 공급망 상류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5) 연합뉴스(2025. 8. 26.), 「트럼프, 주한미군기지 부지소유권 거론...“연내 김정은 만나고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586064?rc=N&ntype=RANKING>(검색일: 2025. 8. 26.).

26) The Washington Post(2025. 8. 9.), “Trump expands use of tariffs to reach national security goals,” <https://www.washingtonpost.com/business/2025/08/09/trump-trade-policy-national-security/>(검색일: 2025. 8. 25.).

- [경상수지 관리] 투자가 진행되어 미국 내 생산이 본격화될 경우 미국 정책의 초점은 전통적인 무역수지 관리 정책에서 경상수지 관리 정책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는바,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은 △GILTI(Global Intangible Low-Taxed Income) 세금, △BEAT(Base Erosion and Anti-Abuse Tax), △FDII(Foreign-Derived Intangible Income) 공제 등을 통해 미국 내에서 발생한 매출과 이윤이 최대한 해외로 이전되지 않도록 막는 정책 수단을 갖고 있으며, 이에 더해 하원은 「통합 예산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 추진 과정에서 ‘해외보복세’ 도입을 추진한 바 있음.
 - 관세정책을 통해 무역수지가 개선되더라도 만약 미국 내 해외투자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 발생한 이윤이 국외로 반출되어 경상수지 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미국은 더 적극적인 경상수지 관리 정책을 구상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수 있음.
 - 이와 관련해 한미 FTA가 가진 플랫폼적 기능을 활용해 우리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자산 및 이윤을 이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필요함.
- [SMR 협력]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원자력 발전에 관한 행정명령을 연달아 발표하는 등 원자력 발전 기반 재건을 위한 의지를 다지는 만큼, 향후 미국의 정책방향을 참고해 정부 차원의 SMR 협력 의제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은 △원전 확대, △규제 완화, △원자력협정 갱신 및 체결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한 한국의 협력 의제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표 13. 미국의 정책에 대응한 韓美 SMR 의제

분야	미국 정책 방향	협력 의제
원전 확대 (韓美)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O 14299] 각종 수출 촉진 정책이 망라되어 있으며, 향후 원자력 도입 가능성이 높은 국가 중심으로 원자력 관련 금융 및 규제 시스템 안정성 양자 현안 동조화를 평가하도록 함. · [EO 14300] 핵규제위원회 현대화로 규제 완화 · [EO 14301] 에너지부 원자로 시험 체계 개혁으로 차세대 원전 도입 가속화 · [EO 14302] 미국 내 핵연료 사이클 강화, 원전 재가동, 신규건설 재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큰 방향] 한국과 미국에 각각 합작투자를 통해 SMR 상용화 사례 확보 · [우선 추진] 「외국인투자 촉진법」 관련 산업부 고시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수정으로 SMR을 원자력 발전업과 분리하고 일부 개방 필요
원전 확대 (제3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O 14299] 미국의 다국적 개발은행 참여를 레버리지로 상대국 대상 금융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과 공동으로 제3국 진출 시 한국도 필요한 금융 지원을 함께해 볼 수 있음.
원자력 협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O 14299] 국무부에 원자력협정 20개 이상 체결 및 갱신 목표를 지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은 2015년 이미 미국과 원자력협정을 체결한 바 있음(조약 제2262호). · 전통적인 핵무기 비확산, 우라늄 농축도 조정 외 공동 원자력 발전을 위한 구상을 담을 수 있어야 함. · 한국은 美 핵규제위원회(NRC)의 규제 방향을 참고해 상호 운용 가능한 SMR 규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자료: 저자 작성.

■ [조선 산업 기회]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조선 부문 협력 요청, 한국 선박 구매 가능성 언급, 법적 규제 완화 가능성 등을 한국 조선업 발전을 위한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음.

- 트럼프는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선박 수출과 유지·보수·운영(이하 MRO)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 필요성에 대해 언급(2024년 11월)한 바 있음.
-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협력하여 미국 조선산업을 재건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우리는 선박을 한국에서 구매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에서 직접 선박을 구매할 수 있음을 시사함.²⁷⁾
- 한미정상회담 이후 한화 필리조선소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도 한미 간 조선 분야의 협력이 미국 해양 안보 강화 및 조선업 부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함.²⁸⁾
-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Ensuring Naval Readiness Act)」, 「해안경비대 준비태세 보장법(Ensuring Coast Guard Readiness Act)」 등의 법안이 발의되었음.²⁹⁾
 - 현재는 「번스-톨레프슨법」과 「존스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미군 함정 및 선박의 해외 건조가 금지되어 있고, 정비(MRO) 서비스 역시 미국 본토에 모항을 두지 않는 지원함에 한해서만 외국 조선소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음.
- 미 해군은 2054년까지 30년에 걸쳐 총 364척의 신규 전투함과 수송·지원함을 도입할 계획이고, 이를 위해 연간 301억 달러³⁰⁾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됨.³¹⁾
- 미국 해군의 MRO 및 신규 함정 건조 사업 입찰 과정에서 국내 기업들 간의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고, 정부 주도의 통합 팀이나 기업 협의체를 조직하는 한편, MRO 사업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됨.³²⁾

■ [조선 협력] 미국의 조선 수요와 공급 모두 미국 정부 정책 방향에 크게 좌우될 수 있는 만큼, 미국이 제시하고 있는 정책 방향을 참고해 한미 조선산업 협력 의제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일본과 협력 가능성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미국은 △조선업 지원, △해군 역량 강화, △북극항로 리더십 확보, △대중국 견제 및 파트너국과의 공조, △인력 개발을 중시하는 정책 방향을 갖고 있으며, 이에 대응한 협력 의제를 구체화해 볼 필요가 있음.

27) 조선일보(2024. 8. 26.), 「트럼프 “무역 재논의 하겠지만 한국이 무엇 얻는다는 뜻은 아냐”」,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5/08/26/3VXLNDBZZJDDPEY756GVHFYLUU/(검색일: 2025. 8. 27.).

28) 뉴스시스(2024. 8. 27.), 「李대통령 “K-조선 기적을 MASGA 기적으로…한미 원원 성과 만들 것”(종합)」,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827_0003304481(검색일: 2025. 8. 27.).

29)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5. 7. 14.), 「트럼프 2기 예산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p. 21, <https://www.kiep.go.kr/gallery.es?mid=a10102020000&bid=0003>(검색일: 2025. 8. 27.).

30) 의회예산처(CBO)는 연간 358억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함.

31) Congressional Budget Office(2025. 1.), “An Analysis of the Navy’s 2025 Shipbuilding Plan,” p. 3, <https://news.usni.org/2025/01/07/cbo-analysis-of-u-s-navys-fiscal-year-2025-shipbuilding-plan>(검색일: 2025. 8. 27.).

32)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5. 7. 14.), 「트럼프 2기 예산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pp. 25~26, <https://www.kiep.go.kr/gallery.es?mid=a10102020000&bid=0003>(검색일: 2025. 8. 27.).

표 14. 미국의 정책에 대응한 韓美 조선산업 협력 의제

분야	미국 정책 방향	협력 의제
조선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부] 국방생산법, 전략자본대출 프로그램 등의 가용한 옵션 검토 · [교통부]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한 조선 금융 인센티브 입법안 제출 · [상무부] 동맹 및 파트너국과의 협력을 통한 적국에 대한 의존도 축소, 우방국 소재 조선업체 지원을 위한 모든 가용한 인센티브 탐색, 해양 번영 구역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적으로 조선업 관련 국가핵심기술 (고부가가치 선박 등 총 8개)의 대미 수출 심사 완화 · 장기적으로 미국과의 공동 산업정책 수립과 조선/해운업 로드맵 작성
MR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부] 예비함대 재원 확보, 유지, 동원에 대한 지침 발행 	
북극 항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부] 북극항로 보안 및 리더십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극항로 공동 개발을 위한 역할 분담
통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STR] 중국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대응 · [USTR] 동맹 및 파트너국과의 무역 정책 공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모의 경제를 확립하기 위해 한국만 사용하는 것이 아닌 미국과의 공동 '전략물자 국적선' 운영
인력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부처] 해양산업 인력개발을 위한 정책개발 지시 * 미국 기관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동맹국에서 해양 전문가 (maritime experts)에게 장학금(scholarships)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erchant Marine Academy 한국 지부 설립 추진 등 인력 교류 활성화 · EO 언급된 '해양 전문가' 파견 * 관세 협상 과정에서 국내 전문가 파견 등의 프로그램이 준비된 바 있으며, 이 외 다양한 해양 및 조선 인력 교류 관련 MOU가 체결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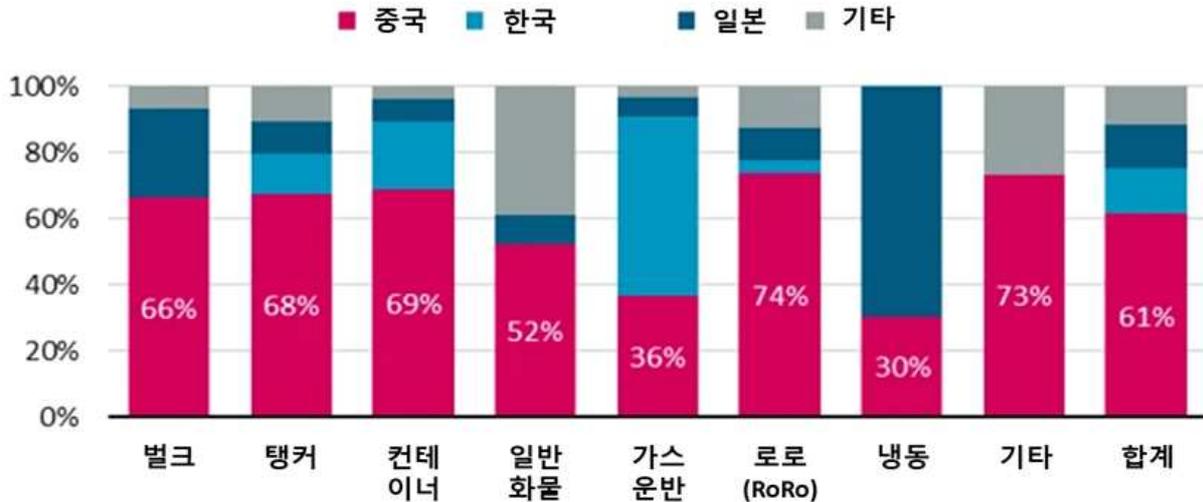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 한국과 일본이 가진 상대적인 강점을 고려해 미국 내 조선 시장에서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미국이 단순한 선박 건조가 아닌 선박의 구성물까지 미국 내에서 생산되도록 유도하고 있는 만큼 공급망 전반에 대한 한미일 협력이 필요할 수 있음.
 - 가스 운반과 냉동선(Reefer)을 제외하면 중국은 거의 모든 종류의 선박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을 제외하면 한국은 컨테이너선, 가스운반선에서, 일본은 벌크선, 자동차운반선(RoRo), 냉동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음.
 - 미국의 해운 및 조선산업에 대한 제301조 조치(2025. 4. 23. 기준)에서 지칭하는 '미국산 배(U.S.-Built Vessels)'는 대체로 단순히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이 아닌 선박의 구성물(components)까지 미국에서 제조될 것을 요구하고 있어,³³⁾ 이 기준을 충족하는 선박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공급망 전반의 미국 내 구축이 필요할 수 있음.³⁴⁾

33) USTR (2025. 4. 23.), "Notice of Action and Proposed Action in Section 301 Investigation of China's Targeting the Maritime, Logistics, and Shipbuilding Sectors for Dominance, Request for Comments," Federal Register 90 FR 17114.

34) 정책 방향이 다소 무리일 수 있어 향후 변경될 수 있으나, 이러한 정책이 취소되더라도 언제든 다시 재추진 될 수 있음. 또한, 향후 조선업에 대한 지원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공급망 전반의 미국 내 구축을 강제하는 요건이 도입될 수 있음.

그림 2. 선박 종류별 수주 점유율(BIMCO)



자료: BIMCO (2025. 3. 17.), "Letter to US Trade Representative," <https://www.bimco.org/news-insights/bimco-news/2025/03/17-ustr/>(검색일: 2025. 8. 27.).

- [한미 FTA]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인해 한미 FTA의 이점이 상당 부분 사라질 수 있겠지만 관세 외 조항의 유효성에 대해 미국과 합의가 필요하며, 추가 대미 투자에 따른 투자 보호 규정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한미 FTA 관세 규정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인해 상당 부분 무력화된 상태이나, 관세 이외 규정(예: 투자, 경쟁 챗터 등)은 확인을 통해 향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지 미국과의 논의가 필요함.
 - 또한 한미 FTA 조항 중 관세를 제외한 규정의 유효성에 대해 미국과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함.
 -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규모 대미 추가 투자가 추진되는 만큼 한미 FTA를 통한 투자자 보호 조항 점검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 한미 FTA 투자 챗터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FTA상 투자 정의에 맞게 투자 계획을 설계하는 한편, 국가안보 예외 조항의 발동 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IEEPA 관련 법적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하여 투자 협력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 [AI를 비롯한 CET 분야 글로벌 경쟁 심화 대응] 한미 양국은 AI, 첨단반도체 등 CET 분야에서 미국의 글로벌 기술 리더십 약화와 중국 부상을 동시에 고려한 공동 대응 노력이 필요함.
 - 미국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부터 AI를 국가 전략기술로 지정하고 NSCAI를 설립하는 등 AI 분야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는 동 분야 규제 완화 및 민간 프로젝트(Stargate, 2025년) 지원에 주력하는 모습임.
 - 이에 한국은 미국의 AI 규제 완화 기조와 민간 협력 확대 흐름을 활용하여 △공동 R&D센터 설립, △첨단 AI 반도체 인력 교류, △소버린 AI 모델 구축, △Stargate 프로젝트 연계 등 실질적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또한 AI 및 첨단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한미 양국은 해당 분야 기술 및 인력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공동 장학 및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추진해 볼 수 있음.

- [MSP 채널을 활용한 한미 간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협력 강화] 한미 양국은 기존에 구축된 MSP를 통해 여타 회원국과 희토류를 비롯한 핵심광물 공급망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유하고 수급 불안정에 대비한 공동 투자 및 인프라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트럼프 2기 행정부 시기에도 MSP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양국은 이를 활용해 대중 의존도가 높은 전략적 핵심광물 수급 안정화를 위한 공동 투자 및 인프라 협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 발표된 행정명령(“A Federal Strategy To Ensure Secure and Reliable Supplies of Critical Minerals,” EO 13817, 2017년 12월 20일)³⁵⁾을 통해 동맹 및 파트너국과의 핵심광물 관련 통상 및 협력 활동 강화가 강조되었던 만큼 현행 MSP는 유지될 것으로 판단됨.³⁶⁾
 - 이에 한국은 미국과 MSP 채널을 통해 핵심광물 수급 리스크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양국 간 공동 운영하기로 한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을 MSP 차원으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해 볼 수 있음.
 - 특히 MSP는 회원국 외에도 아르헨티나, 콩고 등 자원 부국과의 MSP 포럼 운영을 통해 핵심광물 상업화 지원을 위한 채굴, 가공 등 공급망 전반에 걸친 프로젝트 추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활용 가치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양자간 거래를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상 특정 국가로부터 자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미국과 공동 투자 프로젝트 진행 가능성을 사전에 타진할 필요가 있음.
 - 예컨대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전후 재건펀드 설립을 통해 핵심광물에 대한 공동 투자 기반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콩고-르완다 평화협정 체결을 유도하며 해당 국가와의 핵심광물 공급망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하였음.³⁷⁾
 - 이에 핵심광물 분야 대표적인 전방산업인 전기차 배터리 제조에 강점을 갖춘 한국은 전후방 연계의 특성을 살려 미국이 추진하는 상기 국가들과의 공급망 투자 프로젝트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KISP**

35) Federal Register(2017. 12. 20.), “A Federal Strategy To Ensure Secure and Reliable Supplies of Critical Minerals,”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17/12/26/2017-27899/a-federal-strategy-to-ensure-secure-and-reliable-supplies-of-critical-minerals>(검색일: 2025. 8. 21.).

36)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2025. 8. 14.), 「미국의 방산-핵심광물 연계 경제안보 모델 분석: UAE, 사우디, 우크라이나, DR콩고」, 『경제안보 Review』.

37) 위의 자료

부록

- [한일정상회담] 2025년 8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하여 이시바 총리와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가짐.
 - 8월 23일 오후 16시 55분부터 18시 50분까지,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실무 방문의 형태로 이시바 총리와 소인수회담 및 정상회담을 갖고, 회담 결과 내용을 공동언론발표문으로 발표함.
 - 소인수회담에서는 관세 협상, 대미 관계 및 한미일 간 협력 방향에 대한 논의를 주로 진행함.³⁸⁾
 - 이번 방문은 한일 국교정상화 이래 한국 대통령이 취임 후 양자 회담을 위해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방문한 첫 사례로, 한국 정부가 한일 관계 및 역내 한미일 협력을 중시한다는 정책적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평가됨.
 - 양국 정상은 지난 6월 캐나다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성사된 첫 만남에서 셔틀외교를 조속히 재개하고 한일 협력 및 한미일 공조 발전을 이루어나가기로 확인함.
- [한일정상회담 주요 논의 결과] 이번 회담의 주요 논의 의제로는 △한일·한미일 협력 강화, △미래산업 및 공동 사회과제 협력 강화, △한반도 비핵화 등 북한 문제 협력, △청년·문화 교류 확대가 있음(부록 표 참고).
 - [전략 환경 대응] 양국 정상은 인도태평양을 포함한 역내 전략 환경 및 새로운 경제·통상 질서 변화 속에서 안정 유지를 위해 한일·한미일 공조가 필수적임을 공감하고, 정상 및 각급 차원의 소통 강화에 합의함.
 - [미래산업·공동 사회과제 분야 협력] 수소·AI 등 경제 분야 협력 강화 및 저출산·고령화, 수도권 집중 문제, 농업 등 공동의 사회과제에 대한 당국 간 협의체 출범에 대해 합의함.
 - [한반도 및 북한 문제 대응] 한미일 공조를 토대로 북핵·미사일 위협, 불법 사이버 활동 및 최근 심화된 러북 군사협력에 공동 대응할 것을 확인함.
 - [청년·문화 교류 확대] 한일 워킹 홀리데이 참여 횟수 상한 완화 및 한일 양국 전용 입국심사대 운영,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 교류사업 지원 등 청년 교류 기회의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보다 우호적인 환경 조성

부록 표. 한·일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문 주요 내용

구분	구체적 합의 내용
정상 간 교류 및 전략적 인식 공유 강화	- [셔틀외교 재개] 셔틀외교 조기 재개 긍정적 평가 - [전략 환경 대응] 인도태평양 지역 포함 역내 전략 환경 및 경제·통상 질서 변화 하에 정상 및 각급 차원의 전략적 소통 강화 필요성 합의
미래산업 협력 및 공동과제 대응	- [미래산업] 수소·AI 등 미래산업 분야 협력 확대 - [공동 사회문제] 저출산·고령화, 인구감소, 지방활성화, 농업, 방재 등 공동과제 대응을 위해 당국 간 협의체 출범에 합의
인적 교류 확대	- [청년·문화 교류] 워킹홀리데이 참여 횟수 상한 1회 → 2회로 확대 - [입국편의 개선] 한일 양국 전용 입국심사대 운영 재개 논의 및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 교류사업 지원 합의

38) 대통령실 브리핑(2025. 8. 24.), 「순방 2일 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브리핑」(검색일: 2025. 8. 25.).

구분	구체적 합의 내용
한반도 및 북한 문제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핵화·평화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구축에 대한 의지 확인 - [대북 공조]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북핵·미사일 위협 및 러북 군사협력에 대응
역내·글로벌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일 협력]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 한일·한미일 협력의 중요성 재확인 - [국제무대 협력] APEC(경주), 한중일 정상회의(일본) 개최 상호 협력

자료: 대한민국 대통령실(2025. 8. 23.), 「한·일 정상회담 결과 공동언론발표문(2025. 8. 23.)」(검색일: 2025. 8. 25.); 外務省(2025. 8. 23.)「日韓首脳会談」(검색일: 2025. 8. 25.).